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(산업통상자원부, 기획재정부, 외교부, 해양수산부 합동)
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
'13.6.11(화) 17:0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팀 주소령 과장(2110-5326)
미주통상과 김정회 과장(2110-5381)
기 획 재 정 부 외환제도과 김희천 과장(044-215-4750)
외 교 부 북미 1 과 장욱진 과장(2100-7388)
중동 1 과 정병하 과장(2100-7480)
해 양 수 산 부 국제물류팀 서진희 팀장(044-200-5722)

정부, 對이란 무역기업에 신중한 대응 요구

- 미국 제재 강화, 해운사 운송서비스 중단 등 이란 교역여건 악화 -

□ 최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글로벌 해운선사의 이란 서비스 중단 등 對이란 교역여건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,

○ 정부는 對이란 무역기업에게 이러한 교역여건의 변화에 맞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음.

□ 최근 미국은 2013 국방수권법('13.1.2 제정, '13.7.1 발효) 및 행정명령('13.6.3 제정, '13.7.1 발효) 등 일련의 對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

○ 그간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물품, 용역을 일정금액 이상 거래할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되었으나,

○ 금번 조치에 따라 ①이란의 에너지·조선·해운·항만분야 관련 거래, ②이 분야와 관련된 철강 등 원료·반제품 금속 거래 및 ③이란의 자동차 생산, 조립과 관련된 거래 시 금액에 관계없이 제재를 받게 됨.

□ 이러한 제재조치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운선사의 이란 운송 서비스 중단으로 이란과의 교역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

○ 글로벌 해운선사들 대부분이 이미 이란향 화물운송을 중단하였거나, 최근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고 있으며,

* '13.6.7일 현재, 중국 국적선사인 COSCO 포함 전세계 20대 해운선사 중 이란 직기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는 없으며, 환적 서비스도 대부분 중단한 상태

○ 우리 국적선사의 경우에도 한진해운은 '13.6.7(부산출발기준)까지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, 현대상선도 '13.6.14 이후 잠정 중단

□ 이에 따라, 앞으로 대이란 수출규모('12년, 62.6억달러)가 상당수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, 특히 중소기업(전체 2,300여개사, 수출비중이 50%가 넘는 중소기업은 530여개사)의 경우 큰 타격이 예상

○ 이란 수출기업은 미국의 제재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무역활동에 임하여야 함.

○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란과의 교역이 가능한 분야를 명확히 하는 『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』을 개정하여, 이란과의 정상적인 거래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내 수출기업을 가이드 할 계획이며,

* '13.7.1일부터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의한 제재대상 여부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신규로 심사하여,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만 수출 및 대금결제 가능함에 유의

○ 정부에서도 앞으로 수출기업에게 급변하는 對이란 교역 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임.

* '13.6.13(목) 대이란 제재동향 설명회 개최 (오후 3시, 무역회관 51층 대회의실)

□ 정부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하는 한편, 국내 對이란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일 계획임.

○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 대책반*을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,

* 구성 : 기재부(반장), 외교부, 산업부, 해수부 및 관련 부처
개최 : 주요 현안 발생시 주기적으로 개최(5.31일 1차 회의 개최)
역할 : 관계부처간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책 마련 등

○ 특히, 수출선 전환 지원 등 추가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검토·추진할 예정

□ 앞으로, 정부는 이란제재와 관련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관련 대응 방안을 제공할 계획임.

OPEN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팀 주소령 과장(☎ 02-2110-53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